

3 월 29 일 주일, 가정 예배

기도(가족 중 한 사람)

찬송: 430 장 (통 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말씀 나누기: 교만이 가는 길

본문: 호세아 Hosea 13:1-3

(성경 본문 중, 개역 개정과 킹제임스역(KJV)이 원문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체와 어휘가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쉬운 성경과 영어표준역(ESV)을 같이 씁니다. 필요하신대로 번역본을 활용하세요)

**(개역 개정) 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KJV) 1 When Ephraim spake trembling, he exalted himself in Israel; but when he offended in Baal, he died.

(ESV) 1 When Ephraim spoke, there was trembling;
he was exalted in Israel, but he incurred guilt through Baal and died.

(쉬운 성경) 1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겨 죄를 지었으니, 그들은 죽어야 한다.

(개역 개정) 2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KJV) 2 And now they sin more and more, and have made them molten images of their silver, and idols according to their own understanding, all of it the work of the craftsmen: they say of them, Let the men that sacrifice kiss the calves.

(ESV) 2 And now they sin more and more, and make for themselves metal images, idols skillfully made of their silver, all of them the work of craftsmen. It is said of them, "Those who offer human sacrifice kiss calves!"

(쉬운 성경) 2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더 죄를 많이 지었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교묘하게 만든 우상, 즉 모두 대장장이들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저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거기에 제물을 바쳐라”라고 한다.

(개역 개정) 3 이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KJV) 3 Therefore they shall be as the morning cloud and as the early dew that passeth away, as the chaff that is driven with the whirlwind out of the floor, and as the smoke out of the chimney.

(Esv) 3 Therefore they shall be like the morning mist or like the dew that goes early away, like the chaff that swirls from the threshing floor or like smoke from a window.

(쉬운 성경) 3 그러므로 그 백성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쪽정이처럼 되며,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설교 내용은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나누어도 좋습니다.)

**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서 ‘잘난 척’이라는 말로 바꾸고, 내용을 단순화 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아프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에 더 많이 걸리고 있지만(한국 20-40 대 51.1%),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있습니다(한국 70 대 이상 79.2%).

이런 와중에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해변으로 몰려가고,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고, 나이트 클럽에 가고, 무리를 지어 놀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코로나 19 는 당신을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건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난 척’(교만)입니다.

실은 젊은 청년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 ‘잘난
척(교만)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잘난 척’ 하는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잘난 척’하는 씨앗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1 절. 북 이스라엘의 대표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힘세고,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 뿐 아니라 동물들도 무서워 떨
정도였습니다.

(개역 개정) 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KJV) 1 When Ephraim spake trembling, he exalted himself in
Israel; but when he offended in Baal, he died.

(ESV) 1 When Ephraim spoke, there was trembling;
he was exalted in Israel, but he incurred guilt through Baal
and died.

(쉬운 성경) 1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겨 죄를
지었으니, 그들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잘나가던 에브라임이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잘난 척’(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힘이 센 줄 안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1 절 끝에 망했다(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벌써
벌도 받았고,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뉘우치지도 않았던 겁니다.

‘잘난 척’하는 씨앗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싹이나고 뿌리도 내려서 ‘잘난
척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잘난 척 나무’는 다 자랄 때까지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런 독도 내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가 자기 마음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비교하는 마음, 상처, 분노(화), 칭찬 받고 싶은 마음을 먹으며 ‘잘난 척 나무’는 더 크게 자라납니다.

어느날, 충분히 자란 ‘잘난 척 나무’는 이제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를 드러냅니다.

✓ ‘잘난 척 나무’의 가지는 쪽쪽 뺨어 갑니다.

우리 마음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난 ‘잘난 척 나무’는 드디어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잘난 척 나무’의 가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 위로 올라가고, 두번째 가지는 옆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가지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잘난 척 하도록 만드는 가지입니다. 마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처럼 말입니다.

루시엘(루시퍼)는 능력있고, 예쁘고, 멋있는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 자기를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다른 천사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루시엘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름도 ‘사탄’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잘난 척’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가짜 신들(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2 절. 에브라임 지파는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금 덩어리, 은 덩어리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절하고 예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역 개정) 2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KJV) 2 And now they sin more and more, and have made them
molten images of their silver, and idols according to their own
understanding, all of it the work of the craftsmen: they say of
them, Let the men that sacrifice kiss the calves.

(ESV) 2 And now they sin more and more, and make for
themselves metal images, idols skillfully made of their silver, all of
them the work of craftsmen. It is said of them, "Those who offer
human sacrifice kiss calves!"

(쉬운 성경) 2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더 죄를 많이 지었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교묘하게 만든
우상, 즉 모두 대장장이들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저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거기에
제물을 바쳐라"라고 한다..

‘잘난 척 나무’의 오른 쪽 가지가 하늘로 뻗어 간다면,
왼쪽 가지는 옆으로 쪽쪽 뻗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못한다’고 험담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해도 괜찮지만, 너는 하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가져가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어떤 젊은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를 바란답니다. 참 나쁘고 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잘난 척 나무’의 한 가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자라난 이 나무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 ‘잘난 척’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잘난 척’하는 나무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죄가 모두 ‘잘난 척’나무 때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잘난 척 나무’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잘난 척 나무’가 자라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1.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2.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3. 내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4.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척 하는 나무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3 절처럼, 하나님은 잘난 척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개역 개정) 3 이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KJV) 3 Therefore they shall be as the morning cloud and as the early dew that passeth away, as the chaff that is driven with the whirlwind out of the floor, and as the smoke out of the chimney.
 (Esv) 3 Therefore they shall be like the morning mist or like the dew that goes early away, like the chaff that swirls from the threshing floor or like smoke from a window.
 (쉬운 성경) 3 그러므로 그 백성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쪽정이처럼 되며,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다같이) 기도

→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나쁜 생각들의 확산이 멈추게
하소서

→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